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5

인과의 이치 믿고 깨달아라

[원문] 삼계유여급정론(三界猶如汲井輪)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 강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도림사 보광전

[번역]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오다.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산해(禪解)]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는가.' 라는 가끔, 절에 오는 불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그러면 대개 불자들은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구하기 위해 온다고 한다. 그럴 때면 적잖이 실망할 때가 있다. 물론, 집안의 평안을 위해 절에 오는 것은 만류할 수 없다.

우리 불자들은 그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내 가족 잘 되게 해 달라고 향하나 사르고 절 한 번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은 그런 곳이 아니다. 불교는 복을 구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종교다. 오늘날 불자들은 참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의 고마움과 불법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제대로 모른다는 느낌이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그런 기복(祈禱) 신앙이 아니라 복을 지어 받는 작복(作福)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무조건 복을 구하기 위해 절을 찾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들은 모두 기복 신앙의 원천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심지어 기도도 독경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실, 그것이 자신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동하게도,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을 찾아서 기도하고 독경하는 것이 그저 인타까울 따름이다.

세상에서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사람은 오직 나 뿐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사람은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구제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견성성불이며 또한 그 방법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구해주시기 위해하신 말씀이 팔만사천법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다. 하지

만 이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금생에 성불할 좋은 기회를 만났다. 몸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불법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났어도 정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생에는 삼악도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여 나의 본래의 모습인 자성을 찾아야만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설사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야만 한다.

또한 불교의 진리는 '인과의 이치'에 있다. 이를 깨달아 선하고 착하게 살아 복을 많이 지어 행복한 삶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흐르는 물은 그냥 두어도 흐르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달아야만 한다.

원효대사 창건 도림사, 아라한 석상들 길상암에 모셔 인간의 '삼계' 우물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아

다. 지금 우리가 찰나찰나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미래의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

오늘 윤회전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도림사 보광전의 주련 내용이 바로 성불하기 때문이다. 도림사는 전라도 곡성 동악산 청류동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수목이 울창하고 산세가 아름답고 계곡의 맑은 물이 속세의 먼지를 맑고히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청량한 곳이다.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876년(신라 헌강왕) 20년 국사가 중창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도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하여 절 이름을 도림사라 했다고 한다. 이후 고려시대 때 지환대사가 삼장을 하였다.

원효대사가 이 산에 도림사를 창건할 때는 산이 움푹이며 노래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산 이름은 동악산(動樂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암릉과 암봉이 많은 이 산은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불쑥 불쑥 솟아오른 봉우리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둘러쳐져 있다. 원효대사는 성출봉(聖出峰) 아래에 길상암을 짓고 원효굴에서 도를 닦다가 잠이 들었다. 그 때 꿈에서 부처님과 심육아라한을 친견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효대사는 즉시 성출봉에 올라가 보았더니 한 척 남짓한 아라한 석상들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이후 열일곱 번이나 성출봉을 오르내리면서 아라한 석상들을 길상암에 모셔 놓았는데 육시(六

時: 불교에서 하루 여섯으로 나는 열불독경의 시간만 되면 천상의 음악이 온 산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현재 도림사 응진전에 봉안된 아라한 상들은 당시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계유여급정론 백천만겁역미진: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오다.'

삼계란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윤회(生死流轉)한다는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를 말하는데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세 가지이다. 욕계는 오관(五官)의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며 색계는 욕계 위에 있는데 색계사신(色界四禪)이 행해지는 세계로,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色)은 있어도 감각의 욕망을 떠난 청정(淸淨)의 세계이다. 무색계는 물질적인 것도 없어진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를 말한다. 즉 무념무상의 정(定: 三昧)으로서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닦은 자가 태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무색계는 색계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삼계는 세간(世間)이라고

도 하는, 중생이 육도(六道)에 생사 윤회하는 범부계(凡夫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계는 마치 두레박이 우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한량없는 세월을

돌고돌고 돌다. 말하자면 삼계를 사는 중생의 모습은 마치 우물물을 끄는 것 같이 보여 백천만겁의 한량없는 세월을 오르내리락 윤회를 거듭 한다는 것이다. '자신불향금생도 강대하생도차신: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나 이번 생에 제도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를 할 것인가 하는 뜻이다. 참으로 오늘날 불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경구이다.

옛날 고봉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월(心用)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이며 칠팔월(七日月)에 운무가 잠시 흩어질 사이 보이는 빛이 여우 빛이다. 그 또한 심월 인 듯 심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여래의 빛이다. 짐승인 개는 하늘의 달을 보고 해를 보고도 해도 아래의 먹을 갠만 찾는다. 삼척증자는 아버지가 달달 하면 손가락 끝의 달을 본다. 꼭꼭 숨어 있는 여래를 찾아라. 그것이 극락이고 도솔천이다. 반복적인 생활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인신난득(人身難得: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불법난봉(佛法難逢: 불법 만나기 어렵다)이라 했다. 너의 마음을 찾아라.'

이와 같이 가히 성불이란 바로 마음의 달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5

여래의 법신은 변하지 않는다

[원문] 一切時中 言語道斷 心行處滅 是自心 故云佛色無盡 智慧亦復然 色無盡是自心 心識 善能分別一切 乃至施爲運用 皆是智慧 心無形相 智慧亦無盡 故云佛色無盡 智慧亦復然 四大色身 即是煩惱身 即有生滅 法身 常住而無所住 大佛法身 常不變異 故經云衆生 應知佛性本有之身 迦葉 只是悟得本性 更無他事. "언제든지 말이나 문자를 초월하며 사상이나 개념으로 취해질 수 없는 이것이 곧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부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심식(心識)이 온갖 것을 잘 분별하는데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로 비롯되니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뤄진 육신은 곧 번뇌의 몸인지라 나고 죽음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 머무르며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여래의 법신은 상(常)이라 변하지 않으므로 경에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응당 불성이 있는 몸인 줄을 알아야 한다' 하신 것이니라. 가섭은 본성을 깨달은 것이니 따로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니라.'



일카마쿠라시대(1185~1333년) 달마도 (이즈미 기념미술관 소장).

[해설] 우리 본래 부처자리 마음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라 했을 때, 성현들이 쓰는 마음은 우주 그대로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본래 '부처님(實相)'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는 우주의 근본 실상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마음 또는 선(禪), 지혜, 불성, 법성(法性) 등 다양한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실상자리인 부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역경 전이나 역경 후에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혜 역시 실상자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성불멸의 자리입니다.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심식(心식)이 온갖 것을 잘 분별하는데,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로 비롯되니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도 없어지지 않느니라.'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생하는 것도 아니며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쓰는 성인들의 마음은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고 하신 것입니다.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뤄진 육신은 곧 번뇌의 몸인지라 나고 죽음이 있지만 법신(法性)은 영원불변한 진실의 모습 그 자체는 항상 머무르며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모든 물질은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 근본실상을 떠난 것은 모두 번뇌입니다. 달마 스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래 마음자리를 떠난 그 마음이 번뇌고 업입니다. 착한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업이고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본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자리, 그 순간이 수행이지 봉사하고 범문하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번뇌 아닌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본래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는 '생사가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번뇌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물질과 육신은 시간적으로 항상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여래의 법신은 '상(常)'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 근본 실상은 모양이 없는 자리로서 항상 하기에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불성불멸의 자리입니다. 일체 현상계 역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불성(佛性)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섭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세 곁을 통해서 법을 전해 받은 첫번째인이 제자입니다. 이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대중들을 향해 들어 보이시자 가섭 존자가 빙그레 웃음으로 답을 하자 "내 정법안장을 너에게 부촉한다" 하였고 [靈山會上拈花], 다자탑에서 가섭존자에게 자리를 반을 나눠준 것으로 법을 전하셨으며 [多子塔前半分座],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임 [蓮河畔顯示雙趺]으로써 법을 전한 것으로 선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법을 거듭해서 전한 것은 서로가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섭 존자가 깨달은 진리는 본래 성품(性品)을 깨달았을 뿐 다른 무엇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패: 거불/북청계/가영/향수나얼/도량계/다계작법 작법무: 천수바라/사다리니/범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교육원장 해룡 크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보암 스님 전문강사_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용맹정진 안내
부산 화명동 도심 속의 참선도량 여래선원에서 전국의 재가불자와 함께 용맹정진을 개최합니다.
참신 공부의 참다운 비결은 용맹정진 속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어 큰 공부인이 되십시오.
- 아 래 -
• 일시: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8시부터 2009년 8월 16일(일) 오후 8시까지 (5일간)
• 장소: 여래선원 (부산 북구 화명동 금강빌딩 4층)
• 회비: 7만 5천원
• 접수 및 문의: 051-362-0339
• 준비물: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바루
• 교통편: 지하철 2호선(수정역 1번 출구) 시내버스 15번, 59번, 111번, 121번 (방송통신대학 하차)
여래선원 선원장 현 담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 장고·징·팽고리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